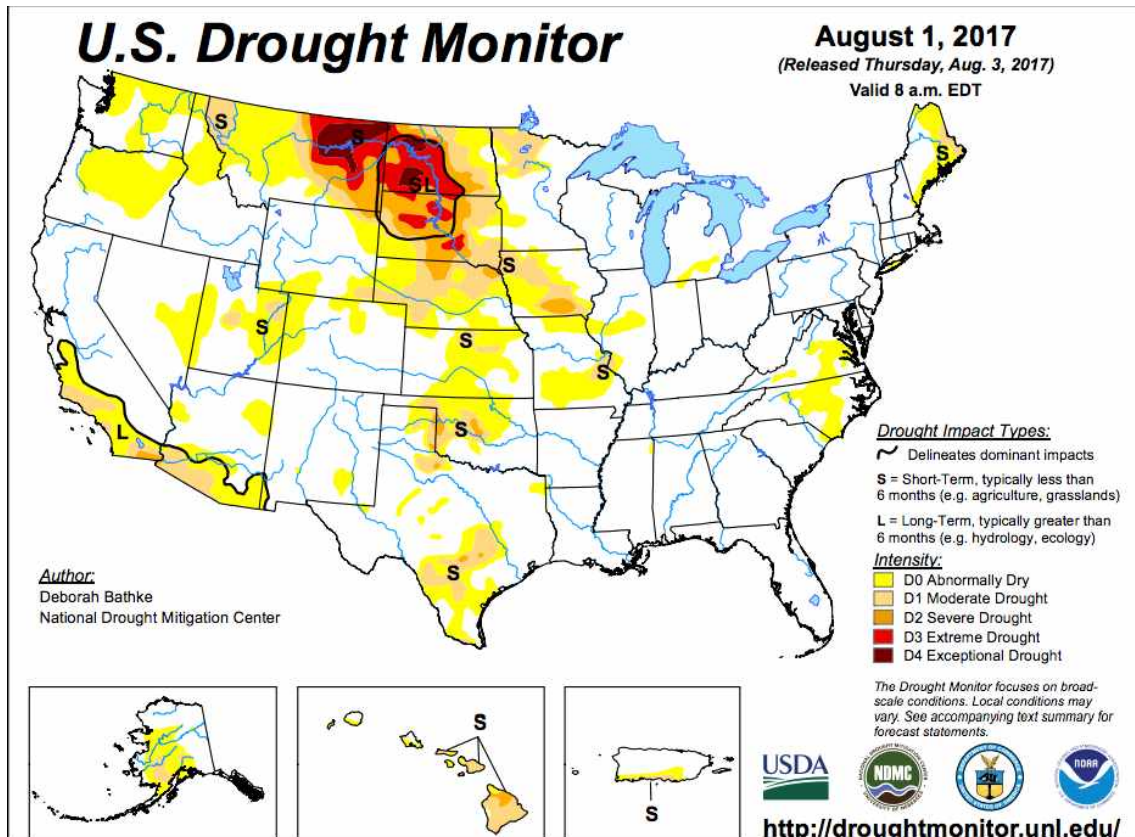


8월 8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4, No. 32)

□ 미국 기후 현황(7/30~8/5)

소형 열대성 허리케인 Emily가 7월 31일 Tempa Bay 인근 플로리다 걸프 연안에 상륙했고 해당 지역에서는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 Emily는 최고 풍속 45 mpg를 기록한 강한 바람으로 크고 작은 산사태가 발생했지만, 플로리다 반도를 지나면서 세력이 크게 약화되었고 서 대서양으로 빠져나가면서 소멸되었다. 하지만, 비구름은 계속 남아 곳곳에서 비를 뿌렸고, 특히 뉴 올리언즈는 큰 홍수 피해를 입었다. 로키산맥 남부에서부터 중남부 일대에 이르는 지역에서도 비가 많이 내렸다. 다코타, 뉴 잉글랜드 일대에서도 비가 내렸고, 이번 비로 북부 지역에서 기승을 부리던 가뭄도 상당부분 해소되었다. 동부 평원과 주요 옥수수 재배지 남서부 등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5~10°F 정도 낮았고, 반면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오레곤 등과 로키산맥 북부 지역에서는 더운 날씨를 보였다. 캘리포니아 북부와 태평양 연안 북서부 일대에서는 특히 기온이 평년에 비해 10°F 이상 높았다. 캘리포니아에서부터 몬태나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가뭄이 이어지고 있다.



## □ 농업 현황 요약(7/31~8/6)

대부분의 지역에서 평년에 비해 기온이 낮은 날씨를 보였다. 미시시피강 일대와 대평원 등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4°F 정도 낮았다. 예외적으로 태평양 연안 지역과 내륙 산간지역 등에서는 지역에 따라 평년보다 기온이 10°F 이상 높았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1.5인치 내외의 강우량을 기록한 가운데, 걸프만 연안 지역과 캔사스, 미주리, 뉴 멕시코, 오클라호마 등에서는 5인치 이상의 비가 내렸다.

## □ 세계 기후 현황(7/30~8/5)

■ 유럽: 유럽 대륙의 중부와 북부에서는 많은 비가 내렸고, 남부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졌다. 북부와 중부 일대에 내린 비의 양은 5~50mm 내외로, 여름작물의 생육에 큰 도움이 되었지만 겨울작물의 파종작업 등이 중단되기도 했다. 프랑스 남서부의 주요 옥수수 재배지역에서는 5mm 미만의 비가 내렸지만, 지난 7월 한 달 동안 충분한 양의 비가 내린 덕분에 생육상황은 좋은 편이다. 스페인에서는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낮 최고기온은 35~45°C까지 오르내리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도 북부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8°C, 남부에서는 40°C 이상 올라가는 더운 날씨가 이어졌고, 발칸반도 일대에서도 낮 최고기온은 37~41°C 수준을 유지했다. 세르비아 북부와 루마니아 서부 등에서도 지난 한주간 평균 낮 최고기온이 40°C를 기록하는 등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 구소련(서부): 우크라이나 서부와 중부 및 러시아 남부 일대의 주요 옥수수, 대두, 해바라기 재배지역에서는 덥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반면, 북부의 주요 농업지역에서는 10~45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몰도바와 우크라이나 남부, 중부 및 러시아 남부 등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5~40°C까지 오르내리고 있지만, 지난 30일간 이들 지역에 내린 많은 비의 영향으로 더운 날씨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현재까지 보고되지 않았다. 옥수수, 대두, 해바라기 등의 수확 전망은 평년 수준이나 그보다 조금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동아시아: 연이은 태풍으로 양쯔강 동부 지역에서는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 태풍 Nesat은 주말동안 대만 북부 지역을 지났고 중국 남동부 지역에 산사태 등을 일으켰다. 이어서 태풍 Haitang이 Nesat과 비슷한 경로로 대만과 중국을 지나갔고, 곳곳에서 산사태가 일어나고 200~500mm 내외의 많은 비를 뿌렸다. 많은 비가 내리면서 양쯔강 동부 절반에 이르는 지역에서 기승을 부리던 가뭄은 완전히 해소되었다. 중국 북동부 지역에서도 50~150mm 내외의 비가 내렸는데, 지난 5월 1일 이후 내린 누적 강우량은 평년 수준에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 북한과 남한에서는 곳에 따라 25~50mm 내외의 비가 내렸지만 여전히 가뭄이 지속되고 있다.

■ 호주: 서호주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5~25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남동부 일대에서도 10~25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하지만, 남동부 일대에서는 지난 5월 1일부터 내린 누적 강우량이 여전히 평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도 더 많은 비가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퀴즐랜드 남부 등 그밖의 밀 재배지역에서도 2~1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동부 일대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1°C 정도 높았고, 서호주 등에서는 기온이 평년보다 1°C 정도 낮았다.

■ 아르헨티나: La Pampa, Buenos Aires 북부에서부터 Cordoba, Santiago del Estero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5mm 미만의 적은 비가 내렸다. Buenos Aires 동부와 북동부 일대에서는 10mm 이상의 비가 내렸고, Santa Fe, Entre Rio 등에서는 보다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 이들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조금 따뜻한 기온을 유지했고, Chaco, Formosa 등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0°C 초반까지 올랐다. 북서부에서는 계절적인 영향으로 선선한 날씨를 보였다. 아르헨티나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8월 3일 기준 옥수수의 수확률은 86%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약 15%p 정도 앞서는 수준이다. 밀의 파종률은 92%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p 앞서고 있다. Buenos Aires의 파종률은 84%로, 지난 해 같은 기간의 77%에 비해 7%p 앞서고 있다.

■ 브라질: 남부의 주요 밀 재배지역인 Rio Grande do Sul에서는 25mm 이상의 비가 내렸는데,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8월 3일 기준 이 지역에서의 밀의 개화율은 3%인 것으로 나타났다. Parana 남부에서는 10mm 이상, 북부에서는 10mm 미만의 비가 내렸고, 낮 최고기온은 30°C 가까이 오르내렸다. Parana 주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7월 31일 기준 밀의 개화율은 6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Sao Paulo, Minas Gerais 등에서는 커피와 사탕수수의 수확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중부와 북동부 내륙지역에서는 옥수수와 면화의 수확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Mato Grosso의 옥수수 수확률은 8월 4일 기준 95%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p 앞선 수치이다. 같은 기간 기준 면화의 수확률은 35%를 기록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의 51%에 비해서는 느린 속도를 보이고 있다.